

“민주노조 말려 죽이는 알루코 자본에 끝까지 맞선다”

고강알루미늄지회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열어 ... 21일부터 본사 상경, 끝장 투쟁 돌입해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의 노조 파괴 중단과 단체협약 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전국의 금속노조 확대간부들이 모였다.



금속노조는 1월 24일 서울 서초동 평화빌딩 알루코그룹 본사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확대간부 500여 명과 고강알루미늄 조합원과 가족이 자리를 함께하며, “알루코그룹은 고강알루미늄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루코자본은 지난해 12월 5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알루코그룹 부회장이 참석하는 교섭에 합의했다. 알루코는 이후 별인 교섭에서 복지축소와 노조활동 불인정 등 기존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이했고, 교섭은 결렬됐다. 고강알루미늄지회는 1월 21일부터 전 조합원이 상경해 서울 알루코그룹 본사에서 전 조합원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박도봉이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며칠 지나 현장의 기대를 저버렸다.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길바닥에 팽개친 박도봉

이 정신 차리게 투쟁해야 한다. 힘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라고 독려했다.

노조 울산지부는 노조의 기금과 지역의 연대를 모아 고강알루미늄 투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알루코 자본이 31년 동안 투쟁으로 조금씩 모아 온 단체협약을 한 번에 다 없애려 한다. 노조도 임금도 복지도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성토했다. 강 지부장은 “박도봉은 우리가 먼저 손들고 나가길 바라지만 우리 끝까지 버티겠다. 투쟁자금과 장기투쟁기금도 준비했다. 충분히 버틸 준비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6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금희 고강알루미늄지회 가족대책위

원장은 “박완수 사장이 잘못 경영하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천막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금희 가대위원장은 “알루코는 대화하지는 가족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고강알루미늄지회는 알루코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상식 수준의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희 지회장은 “일방 단협 해지통보는 민주노조를 없애고,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회사의 공격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단협해지 철회 약속을 받아내 교섭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지회장은 “회사는 뜻대로 교섭이 되지 않자 공문 한 장 던져놓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교섭은 타협하기 위한 과정이다. 요구사항만 공문으로 던지는 비상식 교섭 행태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조합원들은 박도봉 알루코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아 면담을 하지 못했다.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

노조, “A부터 Z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 ... “자동차산업 위기 인식 같이해”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정이 자동차산업 경쟁력 높이기와 미래 환경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을 띄웠다.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을 통해 일 년 동안 관련 정보와 의견 등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논의를 지원한다.

포럼에 참여하는 여섯 개 단체와 기관은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처한 조건과 전망이 어렵다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해 만든 자리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라며 “노조는 분배 문제와 더불어 자동차산업 관련 통상 문제, 나아가 관세 문제 등 A부터 Z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속노조는 완성사가, 금속노련은 부품사가 많다.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이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인사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노·사·정이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계 자동차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한데, 한국자동차 업계는 연구개발이 취약하다”라고 말했다.

신달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0년간 자동차부품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다며 “자동차산업이 잘되길 바라는 공통된 마음은 노·사·정이 같다. 이번 포럼이 자동차산업 발전에 등불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자동차산업은 산업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노동부는 작년 말부터 자동차산업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 노·사가 신뢰를 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와 양대 노총이

함께 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국내외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혁신역량과 산업생태계, 노사관계 등에 대한 소통이 절박해 모인 자리다. 자동차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발족식에 이어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자동차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각 단위 대표자들이 자유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 포럼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가 산업생태계·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사정 관계의 미래지향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정 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자동차산업 발전 전반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대화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한국자동차산업은 부품사를 포함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재정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산업패러다임 변화 속에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핵심화두”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사·정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거론해 상호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